

VII. 종교와 사람의 성품

종교는 우리가 미처 포괄할 수 없는 신성이나 초월이나 궁극성등을 지닌다. 그러나 종교적인 삶은 윤리적인 삶에서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鄭 鎭 弘
서울대 교수·종교학

종교를 지니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종교적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 혹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가 왜 종교를 가지느냐고 물으면 여러가지 대답이 경우에 따라 달리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다운사람」이라든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물론 각 종교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여 「해탈」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이젠 종교에 귀의해서 몸과 마음을 닦아 올바르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경우처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것이 신앙이나 믿음을 가지는 첫째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종교인이 되어 돈독한 신심을 가지게 된 사람은 「바르고 착한 사람」

이어야 한다. 또 종교인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고, 바로 그런이유 때문에 한 사회에 종교인이 많아졌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반드시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생활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 뚜렷하다. 종교인이 착함과 바름과 사람다움에 대하여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종교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착하거나 바름 것은 아니다. 또 종교인이 많은 사회가 반드시 바람직한 사회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두가지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나는 종교인에 대한 너무 지나친 기대, 예를 들면 그는 완전한 인간이라든지, 좀 지나치게 표현한다면 신과 같은 존재라든지 하는 현실적이지 못한 기대를 가지지 말자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종교인을 위선자로 보자거나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종교란, 또 종교적인 삶이란, 그것이 완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의 길을 걸어가려는 간절하고 성실한 생활태도를 일컫는 것임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인에게 기대해야 하는 것은 그가 도달할 이른바 「완전의 경지가」 아니라 「완전을 향한 자세」이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또 하나는 종교인 자신의 자의식의 문제이다. 종교인들은 흔히 자신이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답을 살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혹은 착하고 바르게 살려는 자신의 노력의 현실성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완전한 사람임을 자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말과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독선적이게 되고 배타적이게 되어 비록 스스로 옳다고 하더라도 덕스럽지 못하게 되고 비록 스스로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위선의 너울을 쓴 모습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게 된다. 마침내 자기 신앙이나 신심의 단단해진 껍질 속을 안주하면서 종교를 결과적으로 자기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두가지 사실을 우리는 적어도 종교적인 삶에 대하여 생각할 때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어떻게 대두되든 종교적 삶은 그 결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행위의 열매로 결실되지 않는 종교는 환상이고 관념이며 그럴 수 없는 신앙은 고집이거나 문자적 진리의 집착이 낳는 하나의 편집증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종교가 곧 윤리는 아니다. 역으로 말하면 윤리가 곧 종교일 수는 없다. 종교는 우리가 미처 포괄할 수 없는 신성이나 초월이나 궁극성 등을 지닌다. 그러나 종교적인 삶은 윤리적인 삶에서 구체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 우리는 종교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로 인하여 그 종교의 윤리성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않은지, 또 신앙에 의하여 자기도취되어 위선을 살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